

## 답 화 문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덥고 장마까지 기승을 부리던 날씨도 한풀 꺾이며 조석으로 선선해진 날씨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번 조합 정관 개정은 인천시 권고안(2016년7월27일 시공문)과 예전 집행부의 정관개정소위원회안을 토대로 하여 이사, 대의원회에서 조합발전을 위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1차 임시 대의원회의2017.4.13.)되어 만들어진 개정안입니다.

물론 9,00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만족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9,000명 모두가 만족하는 정관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 및 대의원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고심하여 만든 정관개정안이니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중에서 조합원 간에 이슈가 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첫째, 이사장 연임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이사장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선거 없이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이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안28조2항에 의거 반드시 조합원님들이 선거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잘하면 연임시켜주고 못하면 연임 안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 양\*\* 전 이사장님도 연임하려 했으나 조합원님들이 선거에서 연임을 시키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업권을 책임져야 할 이사장 직책은 골고루 나누어 역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업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사장 두 번 했으니 그만해라는 논리 보다는 조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더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관이 개정되어야 지속적으로 조합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사, 대의원회의 시각입니다.

둘째, 감사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소식지에 여러 가지 개정이유를 설명한 것 이외에도 감사를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면 조합원님들의 선택권을 준다는 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문성을 요구받는 감사자격 검증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정관이 개정되어도 이사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합니다. 정관이 개정되면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관이(개정안28조,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 개정되더라도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선출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9,000명의 조합원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며, 운수사업법에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조합원 총회를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조합도 조합원이 선거를 통하여 지역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당연히 정관은 개정 되어야 하고, 우리 조합은 34년 동안 대의원회가 조합원총회를 갈음하여 운영되어 왔으므로 개정이라는 표현 보다는 오히려 문구 수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조합원님들의 정관개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정관개정에 있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관개정 반대 선동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위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없는 사항을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34년 동안 하던 대로 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다 뜯어 고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일제점검 장소에 정관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이 발전 하려면 이번 정관개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피켓 들고, 찌라시 뿌리며 선동하는 일부 조합원에게 조합원님들이 이제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전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조합은 이제는 성숙한 조합원 의식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송\*\* 조합원이 카톡문자를 통하여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개정 투표나 이사장 선거 때만 되면 되살아 나는 망령을 이번엔 조합원님들이 앞장서서 질책하고 발 붙이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보내드린 소식지를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어 진실 속에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2017년 9월 1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